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5 주차 (11:45~12:8)

(2015년 7월 12일 - 2015년 7월 18일)

(제3권 25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7 월 1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떠나는 자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1:45~53)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유대인들 중에 마리아에게 온 많은 사람들 중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Πολλοὶ οὖν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ἱ ἐλθόντες πρὸς τὴν Μαριάμ καὶ θαυμάζοντες αὐτὴν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46절)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이 떠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ἀπῆλθο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αν αὐτοῖς αὐτὴν ἐπίστευσαν Ἰησοῦς·)
- (47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모여 말했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συνέδριον καὶ ἔλεγον·)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τί ποιού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πολλὰ ποιεῖ σημεῖα·)
- (48절) 만약 우리가 그를 그렇게 허용하면 (ἐὰν ἀρῶμεν αὐτὸν οὕτως)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πάντε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αὐτόν·)
로마인들이 들어 올 것이고 (καὶ ἐλεύσονται οἱ Ῥωμαῖοι)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καὶ ἀροῦσιν ἡμῶν καὶ τὸν τόπον καὶ τὸ ἔθνος·)
- (49절)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고],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ἷς δὲ τις ἐξ αὐτῶν Καϊάφας,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ὁ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οὐδέν·)
- (50절) 또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οὐδὲ λογιζέσθε ὅτι συμφέρει ὑμῖν)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하여 죽고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한 결과

- (51절) 그러나 이 말은 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τοῦτο δὲ ἄφ' ἑαυτοῦ οὐκ εἶπεν.)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언하였다 (ἀλλὰ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ἐπροφήτευσεν)
 나라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기로 한 것을 (ὅτι ἐμελλεν Ἰησοῦς ἀποθνήσκειν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 (52절) 그리고 나라만을 위할 뿐 아니라 (καὶ οὐχ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을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ὰ τέκνα τοῦ θεοῦ τὰ διεσκορπισμένα συναγάγη εἰς ἓν.)
- (53절)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ἀπ' ἐκείνης οὖν τῆς ἡμέρας ἐβουλεύσαντο)
 그를 죽이기 위하여 (ἵνα ἀποκτείνωσιν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5-4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몇 명은 그곳을 떠나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45 절에는 “유대인들 중 마리아에게 온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문상은 유대인들’이라거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온 유대인들’, 또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마리아를 강조하여 ‘마리아에게 온 유대인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가진 의미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계 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앞서 공부했듯이 이 일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자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개연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서로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대신 “유대인들 중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이라 표현하여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 (οἱ ἐλθόντες πρὸς τὴν Μαριά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마리아를 따라 예수님을 맞으러 동구밖까지 나갔다가 직접 나사로의 무덤에 이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비통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상징하듯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유대인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안식 후 첫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에서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28장 4절을 읽겠습니다.

“⁶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⁶¹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⁶²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⁶³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⁶⁴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⁶⁶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숫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⁶⁶ 저희가 파숫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²⁸¹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²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위에 앉았는데 ³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마 27:59-28:4).

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함께 했으며, 그 무덤 앞에 앉아 비통해 하며 절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도 닮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데칼코마니같이 닮은꼴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을까요? 이러한 배치를 통해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이 닮아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도들도 그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을 보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한편 그 중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걱정한 것이지요. 그들은 온통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들(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이 가르쳐 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지명수배까지 내린 그들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기에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더 이상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 그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한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신다면 당신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세상의 것들이 아까워서 또는 자신의 불의나 불경건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낯을 피해 숨을 건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45~53)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유대인들 중에 마리아에게 온 많은 사람들 중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Πολλοὶ οὖν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ἱ ἐλθόντες πρὸς τὴν Μαριάμ καὶ θαυμάζοντες αὐτὴν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그를 믿었습니다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46절)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이 떠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ἀπῆλθο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αὐτὴν ἐποίησεν Ἰησοῦς·)
- (47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모여 말했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συνέδριον καὶ ἔλεγον·)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τί ποιού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πολλὰ ποιεῖ σημεῖα·)
- (48절) 만약 우리가 그를 그렇게 허용하면 (ἐὰν ἀρῶμεν αὐτόν οὕτως·)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πάντε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αὐτόν·)
로마인들이 들어 올 것이고 (καὶ ἐλεύσονται οἱ Ῥωμαῖοι)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καὶ ἀροῦσιν ἡμῶν καὶ τὸν τόπον καὶ τὸ ἔθνος·)
- (49절)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고],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ἷς δὲ τις ἐξ αὐτῶν Καϊάφας,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ὁ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οὐδέν·)
- (50절) 또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οὐδὲ λογίζεσθε ὅτι συμφέρει ὑμῖν·)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하여 죽고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한 결과

- (ἵνα εἷς ἄνθρωπος ἀποθάνῃ ὑπὲρ τοῦ λαοῦ καὶ μὴ ὅλον τὸ ἔθνος ἀπόληται.)
 (51절) 그러나 이 말은 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τοῦτο δὲ ἄφ' ἑαυτοῦ οὐκ εἶπεν.)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언하였다 (ἀλλὰ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ἐπροφήτευσεν)
 나라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기로 한 것을 (ὅτι ἐμελλεν Ἰησοῦς ἀποθνήσκειν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52절) 그리고 나라만을 위할 뿐 아니라 (καὶ οὐχ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을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ὰ τέκνα τοῦ θεοῦ τὰ διεσκορπισμένα συναγάγῃ εἰς ἓν.)
 (53절)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ἀπ' ἐκείνης οὖν τῆς ἡμέρας ἐβουλεύσαντο)
 그를 죽이기 위하여 (ἵνα ἀποκτείνωσιν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7 절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소집한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로 추정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체포와 사형 선고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7 절에서 그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공회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 온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과 이를 받쳐주는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계속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하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거리에서 낫게 하셨으며, 삼십팔 년된 병자를 말씀 한 마디로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장님된 청년의 눈을 고치셨으며 급기야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삼십팔 년된 병자를 고치신 것과 나면서부터 장님된 청년의 눈을 고치신 사건은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고, 이번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 더욱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그들의 눈 앞에서 벌어졌으니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이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암시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인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믿음없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쉽게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룹들은 악이라는 선악이 분법에 매몰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왜 유대인들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왔건만 어째서 유대인은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공짜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지에 대해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진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결국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⁵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⁶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⁷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⁸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⁹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¹⁰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¹¹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¹²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¹³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¹⁴ 이 그릇은 우리를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14-24)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셨음을 설명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결국 유월절에 모든 장자들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만들고, 나아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권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내용을 출애굽기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⁵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⁶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⁷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⁸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¹⁰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출 11:4-10).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도 하고 그들의 모략을 부추기기도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이 그들을 자극하도록 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그 누구도 더 이상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자신들이 누리던 각종 특권들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코너로 몰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사단과 대적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저지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은 꾀방을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꾀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막을 수 없는 약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종교인들의 자기보호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45~53)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유대인들 중에 마리아에게 온 많은 사람들 중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Πολλοὶ οὖν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ἱ ἐλθόντες πρὸς τὴν Μαριάμ καὶ θαυμάζοντες αὐτὴν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46절)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이 떠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ἀπῆλθο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αὐτὴν ἐπίστευσαν Ἰησοῦς·)
- (47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모여 말했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συνέδριον καὶ ἔλεγον·)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τί ποιού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πολλὰ ποιεῖ σημεῖα·)
- (48절) 만약 우리가 그를 그렇게 허용하면 (ἐὰν ἀρῶμεν αὐτὸν οὕτως)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πάντε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αὐτόν·)
로마인들이 들어 올 것이고 (καὶ ἐλεύσονται οἱ Ῥωμαῖοι)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καὶ ἀροῦσιν ἡμῶν καὶ τὸν τόπον καὶ τὸ ἔθνος·)
- (49절)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고],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ἷς δὲ τις ἐξ αὐτῶν Καϊάφας,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ὁ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οὐδέν·)
- (50절) 또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οὐδὲ λογιζέσθε ὅτι συμφέρει ὑμῖν)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하여 죽고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한 결과

- (ἵνα εἷς ἄνθρωπος ἀποθάνῃ ὑπὲρ τοῦ λαοῦ καὶ μὴ ὅλον τὸ ἔθνος ἀπόληται.)
 (51절) 그러나 이 말은 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τοῦτο δὲ ἄρ' ἑαυτοῦ οὐκ εἶπεν.)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언하였다 (ἀλλὰ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ἐπροφήτευσεν)
 나라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기로 한 것을 (ὅτι ἐμέλλεν Ἰησοῦς ἀποθνήσκειν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52절) 그리고 나라만을 위할 뿐 아니라 (καὶ οὐχ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을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ὰ τέκνα τοῦ θεοῦ τὰ διεσκορπισμένα συναγάγῃ εἰς ἓν.)
 (53절)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ἀπ' ἐκείνης οὖν τῆς ἡμέρας ἐβουλεύσαντο)
 그를 죽이기 위하여 (ἵνα ἀποκτείνωσιν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8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그렇게 허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로마인들이 들어 올 것이고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수수방관하게 되면 첫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둘째, 로마인들이 들어 올 것이고, 셋째, 로마인들이 유대 땅과 유대 민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첫번째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도저히 피조물인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데 이것은 바리새파들뿐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허용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은 언뜻 보기에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허용해 두는 것과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민족을 빼앗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억지논리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몇가지 견해를 내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미 로마의 타이투스(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과거 셀루시드의 에피파네스 4 세에 의해 성전이 유린되었던 사건에서 기인한 유대인들의 집단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 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 그들이 말하는 땅을 광의로 해석하기보다는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땅이란 팔레스틴 땅 전체가 아닌 예루살렘, 더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당시 유대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로마 정부는 과거 헬라인들과는 달리 각자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런 로마의 관용 정책 덕분에 사두개인들은 과거처럼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었고, 로마인들의 목인 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로부터 성전세를 거두어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정치적 독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도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직접 나선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유대는 늘 로마의 감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으며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인들은 효과적으로 유대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 친로마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그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유대 국가를 세우거나,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현재 지위가 흔들림 없이 공고히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로마인들이 유대로 쳐들어 올 것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 민중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 편에서 계 됨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와해될 것을 더 염려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와의 정치적 관계를 빌미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항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경우, 그를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추대하여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유대 땅과 민족을 로마로 복속시켜 식민 통치 방식이 아닌 직접 통치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에게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기에 일찌감치 분란의 싹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가 선포하는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여 예수를 죽일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진리만이 옳이 드러나면 그만이었지만 진리가 드러나자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온 것이 비진리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르쳐 온 모든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고, 그걸 빌미로 자신들이 각종 특혜를 누려왔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이 흑세무민의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

하여 백성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자신들을 비진리로 몰아 넣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둘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후자를 선택하였지요.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길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진리를 마주하게 되면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분명히 그 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 논리나 자신들만의 신학을 만들어 자신을 합리화하려 듭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로 들어 오면서 절대 진리는 사라져 버린 채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번영도 옳은 것이고 고난도 옳은 것이다’ 라는 식의 복불복 신앙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설 파되고 있고, 저마다 나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양 변질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불리(이로운 지 이롭지 않은지)를 따져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종교가 정치화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기보다는 세상을 정죄하고 편가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지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온전히 알아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르고 있나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45~53)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45절) 유대인들 중에 마리아에게 온 많은 사람들 중 그가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Πολλοὶ οὖν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ἱ ἐλθόντες πρὸς τὴν Μαριάμ καὶ θαυμάζοντες ἃ ἐποίησεν)
그를 믿었습니다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46절)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이 떠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ἀπῆλθο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αν αὐτοῖς ἃ ἐποίησεν Ἰησοῦς·)
- (47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모여 말했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συνέδριον καὶ ἔλεγον·)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τί ποιού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πολλὰ ποιεῖ σημεῖα·)
- (48절) 만약 우리가 그를 그렇게 허용하면 (ἐὰν ἀρῶμεν αὐτὸν οὕτως)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πάντε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αὐτόν·)
로마인들이 들어 올 것이고 (καὶ ἐλεύσονται οἱ Ῥωμαῖοι)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καὶ ἀροῦσιν ἡμῶν καὶ τὸν τόπον καὶ τὸ ἔθνος·)
- (49절)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고],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ἷς δὲ τις ἐξ αὐτῶν Καϊάφας,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εἶπ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ὁ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οὐδέν·)
- (50절) 또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οὐδὲ λογιζέσθε ὅτι συμφέρει ὑμῖν)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하여 죽고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한 결과

- (ἵνα εἷς ἄνθρωπος ἀποθάνῃ ὑπὲρ τοῦ λαοῦ καὶ μὴ ὅλον τὸ ἔθνος ἀπόληται.)
 (51절) 그러나 이 말은 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τοῦτο δὲ ἄφ' ἑαυτοῦ οὐκ εἶπεν.)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언하였다 (ἀλλὰ ἀρχιερεὺς ὢν τοῦ ἐνιαυτοῦ ἐκείνου ἐπροφήτευσεν)
 나라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기로 한 것을 (ὅτι ἐμελλεν Ἰησοῦς ἀποθνήσκειν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52절) 그리고 나라만을 위할 뿐 아니라 (καὶ οὐχ ὑπὲρ τοῦ ἔθνους)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을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ὰ τέκνα τοῦ θεοῦ τὰ διεσκορπισμένα συναγάγῃ εἰς ἓν.)
 (53절)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ἀπ' ἐκείνης οὖν τῆς ἡμέρας ἐβουλεύσαντο)
 그를 죽이기 위하여 (ἵνα ἀποκτείνωσιν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9 절과 50 절을 읽으십시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하여 죽고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만들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당신들은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간단하게 ‘예수를 죽이면 모두가 산다’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유월절 대속 제물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가야바의 말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히나” (ἵνα)로 시작되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헬라어에서 ‘히나’ (ἵνα)는 결과절 또는 목적절 둘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결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민족의 자리에서 민족 대신 죽어야만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가 가져올 유익을 알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하여 죽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신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후페르’ (ὑπὲρ)는 ‘자리를 바꾸어 서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즉, 민족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고 예수님의 자리에 민족이 서는 것이지요. 가야바의 이 말은 앞에서 만약 예수님을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민족과 땅을 빼앗을 것이라는 말에 대한 대답인 셈입니다. 결국 이 말은 로마인들의 손에 민족 전체를 넘기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을 넘겨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가야바는 예수님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경우 그 일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 대해 공회원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유익이 되는 것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한 가야바의 말은 단순히 지금 모인 공회원들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는 모습을 질책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줄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앓는 이 빠려는 정도, 자신들의 반대 세력 하나를 제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야바가 생각한 유익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주동이 되어 가롯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가야바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3절, 18장 12~14 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화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요 18:3).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요 18:12-14)

유다가 군대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군대란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는데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얼마나 큰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로마인들이 왔고 로마인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지 않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인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는데 로마가 공범 역할을 한 게 되니 이로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위는 이전보다 더더욱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야바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로마를 끌어들이려는 계략인 셈이지요.

만약, 가야바가 생각하는 데로만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가야바는 이런 정치적인 큰 그림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려는데 반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막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음모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계획한 음모가 가야바 개인이 꾸미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51-53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친절하게도 가야바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 그해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야바가 한 말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는 입만 빌려 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보면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하필이면 그해의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애쓴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의 열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는 반기독교적이라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자신들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유월절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54~57)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54절)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οὐκέτι παρρησίᾳ περιεπάτει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오히려 거리를 떠나 사막 근방 마을, 에브라임이라 불리우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ἀλλὰ ἀπῆλθεν ἐκεῖθεν εἰς τὴν χώραν ἐγγὺς τῆς ἐρήμου, εἰς Ἐφραΐμ λεγομένην πόλιν.)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ἔμεινεν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 (55절) 그러나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τῶν Ἰουδαίων.)
유월절 이전에 각 마을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καὶ ἀνέβησαν πολλοὶ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ἐκ τῆς χώρας πρὸ τοῦ πάσχα)
스스로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ἵνα ἀγνίσωσιν ἑαυτοὺς.)
- (56절)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찾았고 성전에 서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ἔζητουν οὖ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ἔλεγον μετ' ἀλλήλων ἐν τῷ ἱερῷ ἐστηκότας.)
당신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τί δοκεῖ ὑμῖν.)
그가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오지 않을까? (ὅτι οὐ μὴ ἔλθῃ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δοδώκεισαν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ἐντολὰς)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그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ἵνα ἂν τις γινῶ ποῦ ἐστὶν μηνύσῃ, ὅπως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 지방,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 지방을 떠나서 사막 근방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고,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이 초래할 유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처형할 것을 결의하자 예수님은 이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막 인근에 있는 마을인 에브라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도 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았던 벧엘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진 이후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라 여로보암을 물리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남유다 아비야왕은 에브라임산 중 스마라임산 위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이 아니냐 ⁶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⁷난봉과 비류가 모여 좃으므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 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⁸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⁹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좃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¹⁰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¹¹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¹²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대하 13:4-12).

이 연설을 한 후 아비야는 여로보암 군대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의 요충지인 에브라임 땅 일대를 점령합니다. 그 때 점령하게 되는 도시들이 벧엘, 여사나, 에브론 등인데 (대하 13:19), 이 중 에브론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 잠시 머물던 곳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사막지대로 들어가셨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에브라임이었다고 그 지명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비야의 선포를 통해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단 3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아비야’ (אבִּיָּ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여호와와 아들이다’라는 의미이지요. 그가 우상의 상징인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한 말이 바로 위에 인용한 역대하 13 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의 선포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무

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900여년전 아비아왕의 역사적인 선포가 있었던 곳을 찾은 것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 말에 ‘와신상담’ ‘권토중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란 ‘불편한 삶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라는 의미로 뜻한바를 이루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며, ‘권토중래’란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일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잠시 몸을 피하신 것을 이런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 작전상 후퇴를 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서 유월절까지 기다리셨으며, 그 유월절은 곧 예수님 자신이 어린양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단지 작전상 후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피하신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2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곳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도 매우 작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셨고,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올라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는 지금처럼 정보가 쉽게 유통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를 찾은 것은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또한 그것을 통해 함께 한 제자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조용히 유월절 축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절정을 예수님 자신이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조용히 유월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54~57)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54절)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οὐκέτι παρρησίᾳ περιεπάτει ἐ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오히려 거리를 떠나 사막근방 마을, 에브라임이라 불리우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ἀλλὰ ἀπῆλθεν ἐκεῖθεν εἰς τὴν χώραν ἐγγὺς τῆς ἐρήμου, εἰς Ἐφραὶμ λεγομένην πόλιν.)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ἔμεινεν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 (55절) 그러나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τῶν Ἰουδαίων.)
유월절 이전에 각 마을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καὶ ἀνέβησαν πολλοὶ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ἐκ τῆς χώρας πρὸ τοῦ πάσχα)
스스로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ἵνα ἀγνίσωσιν ἑαυτοὺς.)
- (56절)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찾았고 성전에 서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ἔζητουν οὖ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ἔλεγον μετ' ἀλλήλων ἐν τῷ ἱερῷ ἐστηκότας.)
당신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τί δοκεῖ ὑμῖν.)
그가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오지 않을까? (ὅτι οὐ μὴ ἔλθῃ εἰς τὴν ἐορτήν.)
-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δοδώκεισαν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ἐντολὰς)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ἵνα ἂν τις γινῶ ποῦ ἐστὶν μηνύσῃ, ὅπως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5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전에 각 마을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를 “스스로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ἐν ἁγιασμοῖς ἑαυτοῦς 히나 하그니소신 헤오토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정결케 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월절의 무엇을 통해 그들이 정결케 될까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재앙을 피한 것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²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³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⁴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⁵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⁶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⁷ 칠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⁸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뵈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⁹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¹⁰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¹¹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¹²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와 것이니라 ¹³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¹⁴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¹⁵ 그 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 ¹⁶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 13:1-16).

이것이 유월절 축제의 유래이고 또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쪽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양의 피로 대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장자가 죽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자가 살아난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땅에서 나올 때 보여주신 것이지요. 만약에 죽은 장자가 없다면 살아난 장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장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있음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되는 것이지요. 당신에게 있어 죽은 장자와 살아남은 장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스스로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었을까요?

56-57 절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해 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보고를 하여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예수님,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복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유월절, 정결, 예수님입니다. 이 세 단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흠없는 양을 잡아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정결해 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의하여 백성들에게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이 유월절, 정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가 믿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¹²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¹³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¹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9:10-14).

“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²³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²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²⁵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²⁶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2-26).

믿는 사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현실, 그래서 그를 죽여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야 하고,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를 찾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정결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없고 가슴아픈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일은 안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가지 방법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8)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가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 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체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πρὸ ἕξ ἡμερῶν τοῦ πάσχα ἦλθεν εἰς Βηθανίαν.)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Λάζαρος,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Ἰησοῦς.)
- (2절)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ἐποίησαν οὖν αὐτῷ δεῖπνον ἐκεῖ.)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καὶ ἡ Μάρθα διηκόνει.)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δὲ Λάζαρος εἷς ἦν ἐκ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σὺν αὐτῷ.)
- (3절) 그러자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λαβοῦσα λίτρον μύρου νάρδου πιστικῆς πολυτίμου ἤλε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καὶ ἐξέμαξεν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그리고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ἡ δὲ οἰκία ἐπληρώθη ἐκ τῆς ὀσμῆς τοῦ μύρου.)
- (4절) 그러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λέγει δὲ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는 곧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ὁ μέλλον αὐτὸν παραδιδόναι.)
- (5절)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 (διὰ τί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οὐκ ἐπράθη τρ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καὶ ἐδόθη πτωχοῖς;)
- (6절)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εἶπεν δὲ τοῦτο οὐχ ὅτι περὶ τῶν πτωχῶν ἔμελεν αὐτῷ.)
오히려 그는 도적이었고 돈궤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쳤습니다
(ἀλλ' ὅτι κλέπτης ἦν κα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ἔχων τὰ βαλλόμενα ἐβάσταζεν.)
- (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ἄφες αὐτήν.)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ἵνα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τηρήσῃ αὐτό.)
- (8절)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τοὺς πτωχοὺς γὰρ πάντοτε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 (9절)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Ἔγνων οὖν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ὅτι ἐκεῖ ἐστίν)
예수님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καὶ ἦλθον οὐ διὰ 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ἴδωσιν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ἐβουλεύσαντο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ἀποκτείνωσιν.)
- (11절) 그(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ή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 절을 읽으십시오.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들어 오셨습니다. 1 절 내용만 보면 별반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로 들어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해 유월절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토요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장 1 절부터 11 절까지의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부터 들어 오셨습니다. 이날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사건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당시의 유대 풍습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담긴 상징적 의미, 예수님의 말씀 선포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유월절 6일 전 안식일을 택하여 베다니로 오셨다는 것으로보아 그날이 매우 의미심장한 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공부해 가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저녁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지 아니하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베다니(감람산 뱃바게)로 들어가신 일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21:1, 막 12:1, 눅 19:29 참조)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약간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외의 다른 공관복음은 베다니로 오신 그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나귀를 얻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틀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보다는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연관성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그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연관지어 설명하기 위해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재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로 오자 그곳 주민들이 예수님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습니

다. 여기에 삼남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요한은 이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통해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의 만찬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늘 열심히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는데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 일행이 만찬을 열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은 만찬이 열린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마 26:6, 막 14:3 참조). 이 기록을 토대로 보면 마르다는 자신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일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마르다가 매우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 주려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³⁸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³⁹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들을 듣더니 ⁴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⁴¹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⁴²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38-42).

마르다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누가는 그런 마르다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가 일을 도왔다,’ ‘만찬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등으로 객관적 사실만을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녀의 성품을 암시할 뿐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 만찬장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만찬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나사로의 모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을 왜 요한은 굳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그분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특별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일 테지만 사실 그들 대부분은 나사로 때문에, 더 정확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나사로를 묘사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여 남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나사로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같은 죄투성이인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도덕적 변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여전히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롭다’라는 간증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며, 그 부활에 자신은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게 없는 염치없는 자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만찬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나요? 열심히 만찬을 준비해서 예수님 일행에게 대접하는 그것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불러 곁에 앉히셔서 만찬을 즐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